

# ‘전남 1호 데이터센터’ 장성서 첫 삽…AI 전진기지 시동

파인데이터센터, 2028년 26MW 운영 시작  
60MW 단계 확장…빅테크기업 유입 기대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첫 결과물 주목

전남 제1호 데이터센터인 파인데이터센터가 장성 첨단 3지구에서 첫 삽을 뜬다. 전남도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AI) 전진기지 구축 전략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15일 장성군 남면 첨단 3지구에서 전남 제1호 데이터센터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은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따라 체결된 첫 업무협약(MOU)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중 장성군수, 중앙부처 관계자, CJ올리브네트웍스, 현대차증권, 대우건설, 파인애플파트너스자산운용(주) 참여기업 대표와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다.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총 3천960억원을 투입해 26MW급 데이터센터 1기를 우선 구축하고, 향후 60MW급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3년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발표 이후 체결된 첫 업무협약 사례다.

전남도는 2023년 업무협약 이후 투자사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행정 지원을 지속했다.

그 결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민간 투자사와 인적사 모집에도 탄력이 붙었다.



“전남 AI 시대 마중물” 전남 제1호 데이터센터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이 15일 장성군 남면에서 열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안전 시공을 다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조영권 인터넷기자

파인데이터센터는 2028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3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인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빅테크 기업의 전남 유입과 함께 데이터센터 구축 문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를 계기로 지역 산업에 맞춘 AI 전환과 AI 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권역별 AI 혁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파인데이터센터에서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

도 적극 추진한다. 400평 규모의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고 AI·클라우드 분야 전문 교육도 함께할 계획이다. 부지 공터에는 풋살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개방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최근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오픈A I-SK 합동 글로벌 데이터센터 등 설립이 확정되면서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2019년 블루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한 이후 태

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한 전략이 재생에너지100(RE100), 에너지 대전환 흐름 등과 맞물리며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많은 빅테크 기업이 전남에 AI 데이터센터 입지를 타진하고 있고 첨단 반도체 산업까지 유치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한쪽에는 농수산업을, 다른 한쪽에는 첨단 산업을 육성해 양수경장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더현대 광주’ 내달 공사 시작  
현대백, 안전관리계획 제출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지난 11월 착공식 이후 2개월 만인 내년 1월 실제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측은 ‘더현대 광주’ 건립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지난 2일 북구에 정식 제출했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1~2주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1월께 착공할 전망이다.

더현대 광주는 1조2천억원 규모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연면적 27만2천955㎡,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된다. 단순한 쇼핑몰을 넘어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은 중흥토건·현대건설·우미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맡았으며 2027년 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장 목표다. /변은진 기자

## Today

인터뷰·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면

제주항공 참사 1주기…전국서 추모행사 6면

오방색에 담긴 자연과 인간 공존의 미학 14면

## 내란특검 “尹, 권력 독점·유지 위해 계엄”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 목적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기사 4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

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 의회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듬해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본다. 이후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인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됐다. 이는 ‘계엄 설계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

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동일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고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분과,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48시간을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연형뉴스

##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오늘 합동감식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 규명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16일 실시된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축공학·구조기술 분야 전문가 등과 합동 감

식을 진행한다. ▶관련기사 6면  
참여 기관들은 현장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조적 결함 등을 과학·객관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합동 감식은 우선 하루만 예정돼 있지만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연장 또는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감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든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2층 옥상이 무너져 지상 콘크리트와 철근 구조물이 연달아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잔해에 매몰된 4명은 사고 발생 48시간여 만에 모두 수습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앞서 경찰과 노동 당국은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 서울 본사와 광주사무소를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과 관련해 6개 업체를 대상으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안재영 기자

2025.12.01 ~ 2026.02.28

매일매일  
골라 즐기는  
남도한바퀴

남도  
한바퀴

온라인 구매

검색창에

남도한바퀴

Q

http://citytour.jeonnam.go.kr

전용콜센터

☎ (062) 360-8502

유의사항

• 터미널·광주송정역 정시 출발 상품

• 예약확인증·문자 확인 후 탑승

• 식사·입장료·개인비용 불포함(개별 부담)

• 차량 보험 포함(여행자보험 제외/개별가입 권장)

• 교통 상황에 따라 송정역 도착 시간 변동 → 기차표 여유 있게 예매

• 날씨·도로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대체 코스 운영)

• 기상 악화 시 당일 취소 가능

• 실내 음식 섭취 시 대화·이동 자제

• 차량 내 음주나 타인 피해 시 도중 하차 조치

• 8명 이상 단체 예약은 탑승 거부·부분 취소 불가

• 여행출발일 제외 4일전 전액환불, 3일전 90%, 2일전 80%, 1일전 70% 환불, 당일 환불 불가

전라남도

전통관광재단

금호고속